

유럽 출신 유학생의 한국 대학 경험과 요구 탐색 : FGI 기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오선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유럽 출신 유학생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해 이들의 유학 동기, 학업 및 생활 적응 경험을 탐색하였다. 유학 동기는 아시아 선호, 영어 강의, 일본 대비 경제적 안정성 등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학업 면에서는 전공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어 수업에서 한자 문화권 학습자와의 어휘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전공 연계형 어휘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생활 적응에서는 언어 장벽이 핵심 장애였으며 학내 시스템의 한국어 집중 운영이 정보 접근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출신 유학생들은 입학 과정과 장학금 정책에서도 구조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언어 정보 제공, 전공 연계 한국어교육, 학사 시스템 다국어 통합, 합리적 경제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소수자인 유럽권 유학생의 심층 경험을 다루어 대학 국제화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유럽 출신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한국 대학, 대학 경험, 대학 적응, 학습 요구

* 이 논문은 2025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조교수(한국어문화교육학 전공)

1. 서론

이 연구는 유럽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유학 동기, 전공 수업 참여에서의 언어적 어려움, 한국어 지원 교과목 및 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 캠퍼스 전반의 생활 경험과 적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한국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럽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수행하여 한국 유학 생활 전반의 만족도와 요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학령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이후 전략적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¹⁾ 그 결과, 2024년 전체 유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2023년 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빠른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유학생 중 학위 과정의 유학생이 70%에 이르고 있어 단순한 언어 학습자를 넘어 한국 고등교육의 지형을 다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²⁾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학생의 출신국이 아시아 몇 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물론 중국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고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출신의 유학생이 증가했다는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1) 교육부(2023) 보도자료,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 (출처: <https://www.moe.go.kr>, 검색일 2025.10.25.)

2) 과정별·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전체
2021년	120,018	32,263	152,281
2022년	124,803	42,089	166,892
2023년	129,240	52,602	181,842
2024년	145,778	63,184	208,96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25.10.25.)

영미권 국가 출신의 유학생 비중은 미미하다. 특히 유럽 출신 유학생은 출신국이 41개국임에도 2024년 기준 전체 유학생의 5.1%인 10,681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캠퍼스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지역의 유학생 유치와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한국 대학 내 소수 집단 중 유럽 출신 유학생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그들은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권 유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언어적·교육적 배경을 지닌 집단이며, 한국과 문화적 거리 또한 상대적으로 멀다고 볼 수 있다. 임현성(2016)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유럽 학습자들과 교사 사이에 정의적, 문화적 요소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의 유럽 교육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습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는 대부분 양적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최정윤 외, 2024)이거나 아시아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민경, 2012; 서영주, 202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유럽권 유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이라는 특수하고도 복합적인 맥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럽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입학 동기, 전공 수업에서의 언어적 적응, 한국어 지원 교과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학 생활 전반의 만족도와 요구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대학 생활 전반에서 겪는 문화적 낯섦과 더불어 한국어 수업, 전공 수업 등 대학에서 실제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또한 학습자들의 주관적 요구와 제안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 다변화, 대학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유학생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 등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 범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유럽권 유학생의 목소리를 조명하고, 이들이 겪는 언어적·체

도적 어려움의 양상을 기술함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부 유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연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경험하는 학문적·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은 단순한 학업의 연장이 아니라 언어, 관계, 제도, 문화 등 다차원적 환경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요구하는 복합적 경험이다. 특히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의 적응 요구가 크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들은 향후 유학생 유치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경험 및 적응과 관련된 국내 주요 연구들을 검토하고 기존 논의의 범위와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는 최정윤 외(2024)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양적 연구로 국내 10개 대학 학위 과정 유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유학 동기, 학교 생활, 경제 문제, 지역 정주, 진로 교육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학 선택 시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대학 평판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내의 사회적 교류 면에서는 학업적, 비학업적 부분 모두 같은 국적의 친구를 선호하고 있어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교류의 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유학생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피는 데에 있어 유의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 결과이다.

다음 권양이(2008), 김현진·김영주(2015), 백성희(2016), 최현실(2018), 서영주(2020) 등의 연구들은 인터뷰, 내러티브 연구 등을 통해 외국인 유

학생들의 국내 대학 경험과 적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양이(2008)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는데,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국어 및 언어 능력, 편견, 재정적 압박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의 행정가, 교수자들 뿐아니라 외국인 정책 입법자들이 유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진·김영주(2015)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사용 능력에 초점을 두어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는데,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 영어 및 한자 실력 부족, 전공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한국 대학의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언어 능력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전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백성희(2016)는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341명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대학의 물리적 환경과 인종 차별 풍토가,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 문화충격 경험이 대학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이 미비할 경우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며, 또래의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은 적응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341명의 대량 자료를 확보하여 면담 분석이라는 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현실(2018)은 학사 지도 면담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집단의 공통된 현상적 특징을 꼽고 있는데, 외로움 대한 적극적 대응, 경제적 부담 극복, 뚜렷한 목표 의식과 자기 계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을 위해 개인적인 생활

지원과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민경(2012)와 서영주(2020)는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대학 생활 등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민경(2012)은 서울 지역의 소위 명문대 재학 중인 유학생들과 비교하여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유학 동기를 기회 탐색, 문화적 여행, 글로벌 디딤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영주(2020)는 부산의 한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유학생 7명의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탐구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초기 경험에서는 한국어로 인한 소통 문제, 외로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후 미래와 취업에 대한 고민, 학교와 한국에의 도움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연구는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권 학생들, 지역 거주 학생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중국 및 아시아권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럽 출신 유학생의 특수한 적응 양상을 다룬 연구는 찾기 힘들다. 특히 영어는 유창하지만 한국어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유럽 유학생의 언어적 조건, 문화적 거리감 등은 일반적인 유학생 집단과는 다른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적응 양상과 요구를 밝히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 유럽 출신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출신 대륙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약 91%를 차지하며 유럽은 5% 정도를 차지한다.³⁾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비해서는 다수이나 한국어 학습자 집

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있어 학습자 집단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유럽 지역 41개국의 유학생이 한국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 기준 상위 15개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지역의 학습자가 가장 많고,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순으로 유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4년 유럽 지역 상위 15개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국가명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러시아	1096	246	33	1375
프랑스	134	210	21	365
독일	108	87	21	216
이탈리아	70	53	16	139
우크라이나	84	22	18	124
영국	66	33	13	112
스페인	32	28	16	76
폴란드	32	33	6	71
네덜란드	25	23	7	55
스웨덴	48	5	2	55
노르웨이	35	18	2	55
핀란드	24	16	0	40
스위스	19	10	1	30
벨기에	12	11	5	28
체코	8	7	3	18
계	1952	956	205	2759

3) 2024년 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비학위 과정	학위 과정	유학생 수	비율
아시아	137,493	52,142	189,635	90.75%
남아메리카	603	431	1,034	0.49%
북아메리카	1,846	2,371	4,217	2.02%
아프리카	2,515	496	3,011	1.44%
오세아니아	208	176	384	0.18%
유럽	3,113	7,568	10,681	5.11%
계	145,778	63,184	208,962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검색일 2025.10.25.)

물론 유럽은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 있고 언어와 민족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EU라는 정치적 결속력, 교류의 활발함, 역사적인 문화 공유 등에서 하나의 큰 문화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재훈(2015)은 2015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지역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약 25개국, 60여개 정도의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유럽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공 과정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온 학문적 전통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다른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소영(2021)은 폴란드, 체코 등의 중부 유럽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발칸 반도 국가를 중심으로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를 논의하였고, 이상숙(2020)은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으나 역시 한국 내 유럽 학습자와 유학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지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논하는 연구들이었다.

이처럼 유럽 지역 학습자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윤행(2022)의 연구는 유럽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자발적 동기, 내적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며, 학업이나 취업 등 도구적 동기는 적다고 하였다. 또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언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임현성(2016)은 한국 내 유럽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사 인식 변화의 필요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출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연구도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국 내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입학 이후 학문 목적의 한국어 사용과 대학 생활 적응을 다룬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럽 출신 유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및 교육적 요구 분석을 통해 학문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럽 출신 유학생의 한국 대학 적응과 요구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 중 유럽 출신이며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학생들은 총 3명이었으며, 2025학년도 1학기에 외국인 학생 대상의 한국어 수업을 함께 수강한 학생들이었다. 그 수업은 초급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수업으로 아시아권 학습자가 대다수인 중고급 한국어 수업과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로 이루어졌다. 해당 수업의 정원은 30명으로 많지 않아 학습자들은 서로에 대해 약간의 친밀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절차, 정보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재차 확인,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 정보

구분	국적	전공	한국 대학 수학 기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숙달도
A	이탈리아	미디어학	3학기	1년 6개월	1년 6개월	초급
B	프랑스	경영학	3학기	2년	2년	초급
C	노르웨이	글로벌자율학부	2학기	10개월	10개월	초급

A학생은 이탈리아 국적으로 미디어학부 2학년 학생이다. 한국어는 한국 대학 입학 2주 전에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대학 입학 후 한국어 과목을 집중해서 듣고 있지만 여전히 초급 수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갖고 있다. B는 프랑스 출신으로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에 가장

오래 체류하였지만 한국어 숙달도는 초급 수준이다. C는 노르웨이에서 온 학생으로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하여 1년간 한국어 학습과 전공 탐색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 기계공학과로 전공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세 명의 학습자는 모두 입학 전 한국어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TOPIK 등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 응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모두 영어 의사소통에 능숙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주로 수강하고 있고 한국어 강의는 초급 수준의 교양 어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3.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FGI를 통해 이루어졌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설계된 인터뷰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또한 FGI는 단순히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집단 담화(Morgan, 1997)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럽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있어 상호작용이 활발하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반응과 상호작용에 따라 심층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FGI 면담 질문지 구성

범주	질문 예
간단한 자기 소개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name, country, major, time in Korea)
입학 동기	What motivated you to study in Korea?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경험과 만족도	What aspects of your classes did you find most satisfying?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적응도	Can you describe any cultural differences you found difficult to adjust to?
한국어 수업에 대한 평가와 요구	Were the Korean language classes helpful for understanding your academic content?
대학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What should Korean universities do to attract more European students?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참여자들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관계로 90% 이상 영어로 진행되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어 117분 47초 분량의 전사본이 확보되었다. 참여자들의 익명성 및 기밀성은 엄격히 보장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naver의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여 전사되었으며, 연구자가 녹음본을 다시 한번 들으며 오류를 검증하였다. FGI 전사본은 1차적으로 DeepL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한 후 연구자가 영어 전사본과 확인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맥락을 보완하였다. 이후 정성적 주제별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 단계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초기 코딩을 진행했다(예: 수동적 교육, 그룹 프로젝트, TOPIK, 학교 포털 문제). 이 초기 코드를 바탕으로 2차 및 3차 심층 코딩을 통해 주제 클러스터를 도출했다. 그 결과, 주요 분석 항목은 동기 및 기대, 전공과 한국어 과목에서의 학습 경험, 생활 및 문화 적응,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선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한국 대학 입학 동기 및 기대

연구 참여자들이 유럽에서 물리적,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 대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단일 요인보다는 복합적 동기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추출된 내용들은 아시아에 대한 선호, 학비 및 비용 부담 감소, 영어 수업 가능성, 전공 선택 유연성, 커리큘럼 다양성 등이었다.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어서 유학도 아시아로 선택했어요. 12살 때부터 일본 만화를 좋아했어요. 한국이 사실 제 첫 번째 옵션은 아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일본에는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가 아니면 영어로 된 옵션이 없어요. 교양학부는 작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커리큘럼이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일본은 정말 비싸죠. (참여자 A)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제가 해외로 나가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프랑스 생활에 지쳐 있었고, 미국은 비싸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라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을 고려해 봤어요.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여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나라가 안 될 거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한국이 된 거지만 여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참여자 B)

해외 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잼버리에 참가해서 한국에 처음 왔어요. 여름에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잼버리 자체는 좀 지저분했어도 나한테는 다 괜찮았어요. 스카우트일 때는 그런 건 익숙해요. 미디어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뒤에 일본에 2주 정도 가 봤지만 한국이 더 낫더라고요.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었고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C)

이 학생들의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유럽 외의 국가로 유학을 하고 싶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며, 1983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2008년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등을 발표하며 일찍부터 우수한 해외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입국 절차의 합리화, 일본어 교육의 질 제고, 졸업 후 취업 및 일본 정착 지원 등의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고등교육 국제화 및 지역 인구 소멸 대책으로 유학생 수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최정윤 외, 2024:104). 그러나 일본 대학에는 영어 수업이 적다는 점과 학비 및 생활비가 더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생 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 출신인 참여자 C는 잼버리 참가로 인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유학으로 이어진 경우로,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와 같은 국제 행사가 실제로 한국을 알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다음은 한국 대학을 선택한 동기로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우수함을 들고 있었다. 전공과 교육과정이 고정된 유럽의 대학과 달리 한국 대학은 최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전공제를 확대하며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⁵⁾ 외국인 전담학과의 경우에도 무전공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⁶⁾ 또한 최근 국내 대학들이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민감하게 관리하여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는 최정윤 외(2024:129~130)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데,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 700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선택한 주요 요인은 한국의 치안 수준, 한국에 대한 호감 및 관심, 전공 분야의 경쟁력, 한국 대학에 대한 평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관련 기사: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4만3천 명 모였다, 잼버리 개영식 2일 오후 8시 개최, 비즈니스포스트, 2023.8.2.,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124 (검색일자: 2025.10.25.)

5) 관련 기사: 무전공 선발 대폭 확대 “첨단산업 이끌 융합형 인재 양성”, 한국일보, 2024.7.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811500004763?did=NA> (검색일자: 2025.10.25.)

6) 고려대학교의 글로벌자율학부, 연세대학교의 글로벌인재학부 등이 그 예이다.

프랑스는 전공 고정인데 한국은 다양한 수업을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예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대학 중 하나라고 느꼈거든요. (참여자 B)

저는 조사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미국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수업 선택이 가능하고, 축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계제 관점에서는 미국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대학 교육이 좋다는 평판이 있죠. (참여자 A)

노르웨이 대학 말이에요.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처럼 느껴져요. 한국 대학교에서 Global Open Major라서 아직 전공 선택 안 했는데 이 점이 정말 좋아요. 1년 후에 선택할 수 있어서. (참여자 C)

반면, K-Pop이나 K-Drama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은 한국을 선택하는 보조적 이유에 불과하며 특히 장거리에서 온 유럽 학생들에게는 장기 유학의 어려움을 상쇄할 만큼 큰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의 막연한 동경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한 호기심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것(서영주, 2020: 44~46)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 있는 중국 친구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하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런데 K-Pop만 좋아해서는 여기에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다른 생활 문화들이 있거든요. K-Pop이나 K-Drama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여기에 있는 어려움들을 상쇄시키는 데 더 무게가 실려야 해요. (참여자 B)

서영주(2020:44)에서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중 하나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취업의 기업이 확대되고 있어 취업 및 미래 보장에 대한 믿음으로 유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졸업 후 한국 관련 취업 가능성 등 진로에 대한 동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시아 출신 학습자들의 유학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참여자 B는 졸업 후 다른 영어권 국가로의 대학원 진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아시아권에서의 취업 및 체류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C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최정윤 외(2024:137)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외국인 유학생 700명 중 45% 이상이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희망하였고, 그중 76%는 한국 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선택한 동기는 아시아권 고등교육에 대한 실용적 판단과 개인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아시아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전제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업 언어의 유연성, 학비 부담의 상대적 경감, 교육과정의 개방성 등의 요소에서 한국 대학이 우위를 점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무전공제 도입과 다양한 교양 커리큘럼, 영어 강의 개설의 확장, 그리고 대학 평판에 대한 국제적 인정은 유럽권 학습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체계적 교육 조건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학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4.2. 학업 경험

4.2.1. 전공 수업

다음은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경험에 대한 답변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 대학에서의 수업이 자신의 국가보다 참여 중심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과제, 발표, 프로젝트가 많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피드백을 주고 있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탈리아에선 수업을 듣는 대신 구글 검색을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긴 몰입하게 돼요. 이탈리아에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룹 프로젝트를 해야만 해요. 상호작용이 더 많고 개별 프로젝트도 있죠. 그 점이 정말 좋아요. (참여자 A)

저는 그룹 프로젝트가 많다는 사실이 정말 좋아요. 시험보다 쉽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 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같아요. 특 히 제가 듣는 경영학 수업은 보통 5~6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서 처 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교수님들이 메일이나 카카오 특으로 답도 잘해 주세요. (참여자 B)

유럽 대학에 토론식, 발표식 수업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러 번 질문을 하였으나, 참여자 A, B, C 모두 유럽 대학에 강독 방식 수업이 많으며 학사 과정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자율적이어서 오히려 학습 의지를 꺾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 수업의 참여 중심 구조를 한국 대학 수업의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유럽 대학의 자율성 중심, 강의식 전달 위주의 수업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수업 몰입도 및 학업 지속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의지는 언어적 장벽을 경험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수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학습자에게 자율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학교에 안 가도 돼요. 노르웨이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동기 부여가 안 돼요. 내 친구는 학기 중간에 2주 동안 스페인에 여행 갔는데도 괜찮았어요. 아마도 COVID 때 그렇게 된 후에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C)

이탈리아에서는 교실에서 책이나 슬라이드를 펴고, 교수님이 그걸 읽어

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대학 갔다가 그만뒀어요. (참여자 A)

저는 프랑스 대학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제 친구가 말하기를 교수님이 오셔서 불을 켜고 슬라이드를 띄우고 두 시간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래요. (참여자 B)

이처럼 한국 대학의 강의 방식과 교수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과목의 학점 구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다. 유럽 대학과 달리 과목별 난이도나 학습량의 차이가 학점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나 이것이 학업 성취도와 장학금 수혜 등 실질적인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학점 배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모든 학점, 모든 수업이 같은 학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업은 규모가 정말 크고 3학점인 반면 어떤 수업은 규모가 정말 작거든요. 그래도 3학점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학점이 달라서 GPA에 가중치가 달라요. 12학점은 필수 과목처럼 큰 수업,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 같은 거요. 6학점은 작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달라요. 여기서는 모두 똑같으니까 장학금에 공평하지 않아요. 쉬운 수업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여자 A)

4.2.2. 한국어 수업

한국 대학은 유학생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고, 한국어로 강의 듣기, 발표하기, 보고서 쓰기 등의 학업적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된 해당 대학 또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도를 사전에 진단하여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 초급

수준으로 한국어 초급, 말하기, 글쓰기 등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중급 1도 수강했는데, 초급 2와 중급 1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초급에 비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어 수업이 너무 쉬운 반이랑 너무 어려운 반밖에 없었어요. (참여자 A)

한국어 수업에서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었고 TOPIK 4 수준이었어요. 저는 거의 올 뻔했어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급에서 중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난이도 격차가 과도하며,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 학습자와의 격차로 상대적인 위축과 학습 의욕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한국에서 두 학기 이상 초급 과목을 수강했으므로 중급 과목을 수강해야 하지만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것이다. 대학 교양 과목의 경우 15주, 45시간 기준으로 과목이 운영되기 때문에 두 학기를 연속 수강한다 해도 연간 90시간의 학습 시간밖에 나오지 않아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양 선택 과목의 경우 초급과 중급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에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숙달도별 한국어 수업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 설계하거나, 중급, 고급 등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때 별도의 진입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사전 학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한자 어휘 기반의 언어적 전이 혜택이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들과의 학습 속도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함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급 단계, 전공 분야 어휘로 갈수록 한자 어휘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와의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었고, 한국어 말하기와 전공 수업 수강 등 전 영역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휘 수업 개설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어휘 중심의 상호작용적인 수업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공 수업 수강 전에 전공별 전문 어휘를

익히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모든 전공에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실제 대학 수업 참여를 위해 일반적인 학업 목적 한국어보다 전공 맥락에서의 학업 목적 한국어 사용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요구를 보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어휘 수업은 KSAP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 한국어, 미디어 한국어, 기계공학 한국어 등의 과목을 예로 들 수 있다. Jordan(1997)의 교육과정 분류 체계에 따라 학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전공 진입 전 대학에서 일반적인 학문 수행에 사용되는 한국어(KGAP, Korean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와 전공 영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문 수행에 사용되는 한국어(KSAP, Korean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KSAP의 경우 수업의 목표가 특정 학문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전공에 따라 학습자들의 요구와 학습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KSAP 과정은 보통 KGAP 과정보다 심화 과정으로 분류되며 해당 전공 영역의 담화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있는 담화 장르에 대한 분석, 용어와 개념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목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 참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KSAP 과정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 내 학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내에서 KGAP와 KSAP와의 연계 구조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어휘에 대해 말하자면 문법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매일 사용하는 기본 문법 규칙을 알게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하지만 말하기 능력은 어휘에 달려 있어요. 문법을 몰라도 통하지만, 어휘가 없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고급 어휘가 한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어휘 수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휘에 초점을 맞춘 상호 작용 수업. (참여자 B)

전공을 듣기 전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어휘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제 전공인 미디어에 대해 많은 어휘를 알 수 있도록 말이예요. 전공에서 사용되는 특정 어휘를 다루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여자 A)

또한 해당 대학은 한국어 어학 수업의 경우 영감을 제공하지 않고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문법 등 난해한 개념 설명이나 중요 공지 시에는 영어 사용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어 몰입 중심 교육이 학습자 이해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때 제한적인 매개어로 영어를 사용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제나 시험 등 중요한 공지를 할 때는 한국어 과목 교수자들이 영어를 병행하는 등의 배려를 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적 입력과 정확한 이해에 대한 균형을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어려운 개념이나 문법 같은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면 좋기도 해요. 그건 좋은데, 모든 게 영어로만 가르치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입력이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들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알게 되니까요. (참여자 C)

TOPIK 4급은 괜찮은 거 같아요. 공평하고, 말이 되죠. 한 나라에서 4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대학과 같이 해당 학교는 TOPIK 4급을 유학생의 졸업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는 요건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동기 부여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관련 교양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지 않았다. 지적 호

기심을 채울 수는 있지만 대학 생활 및 한국 생활과 실제적 연계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서울시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형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하였다. 이는 문화 교과목 설계 시에도 지식 전달형 문화 콘텐츠보다는 경험 중심의 맥락 기반 학습을 통해 문화와 언어의 실용적 연결성을 중시하는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은 과제가 많고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복에 관한 수업도 있는데 역사, 제작 방법, 착용 방법도 배워요. 매우 흥미롭긴 한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수업 같은 거요. 서울을 실제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 이런 게 좋아요. (참여자 B)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럽 출신 유학생들의 학업 경험은 전공 수업과 한국어 수업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전공 수업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대학의 수업 방식이 모국 대학에 비해 참여 중심적이고 체계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룹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과제 중심 수업은 학습 몰입을 유도하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도 친절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업과 관련해서는 한자 문화권 학습자들과의 어휘력 격차, 급격한 수준 상승을 경험했으며, 실용적 어휘 중심 수업과 전공별 어휘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럽권 유학생들은 학문적 몰입과 언어적 성장 모두를 목표로 하며, 전공과 한국어 학습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습자 맞춤형 언어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생활 및 문화 적응

수업에서의 만족도와 달리 유럽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 생활에서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적응 경험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언어 장벽이 문화 적응보다 더 본질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가 능숙함에도 한국 학생들

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언어적 불균형과 상호 기대치의 차이가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발견되었고, 주로 교내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교류하고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주로 영어가 자유로운 학생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학생들의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모국어와 같은 친구를 선호하며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정윤 외(2024:13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현진·김영주(2015)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영어 연습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외국인 학생을 조별 과제에서 발표 담당으로만 활용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기능적·도구적 접근에 가까웠다고 평가하였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는 거의 안 해요. 그들이 원할 때만 해요. 영어로 연습하고 싶어하거든요. (참여자 A)

영어로 말하는 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거든요. (참여자 C)

영어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을 조에 넣는 이유는 발표를 맡기고 싶어서예요. 영어 강의에서 3학기 동안 7개 영어 발표를 했어요. (참여자 B)

예전에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지만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친구로 계속 지낼 수 없었어요.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어요. (참여자 C)

또한 학과 단체 채팅방이나 공지 사항 전달에서도 한국어가 기본 언어로 사용되며 외국인 학생들은 사실상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하였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학교의 공식 포털사이트에서 언어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정보 접근성 차이는 유학생들의 자율적 대학 생활 운영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무전공 학부에 재학 중인 참여자 C는 전공 트랙 진입 요건, TOPIK 졸업 요건 등 중요 학사 정보에 대한 영어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였다. 이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부족이 어떻게 일상적인 배제의 경험과 소속감 결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이 유학생을 국제화 지표상의 수치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과 단체 채팅방에 모든 것을 한국어로 보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보내는 유일한 것은 회비를 내라는 공지뿐이에요. 네, 돈에 관련된 것만 영어로 하죠. 그래서 저는 돈을 내지 않고 모임의 일원이 아니에요. (참여자 B)

학교 포털의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어 버전에는 영어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 포털에서 뭔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저는 영어 버전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어디에 있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러자 한국어를 아는 제 친구가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가서 '아니, 여기 바로 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C)

그러나 한국 학생과의 교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교내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우정을 형성한 사례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유학생의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중재 장치가 작동할 때 실질적인 관계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이다. 따라서 유학생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이 상호 동등한 관계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한국 친구 몇 명 있는데 특히 한 명은 절친이에요. 언어 프로그램에서 만났어요. 이 프로그램은 유료증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등록하면 한국 학생과 짝을 지어줘요. 그들은 영어나 우리 언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저는 첫 학기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참여자 A)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는 태도와 열린 자세를 통해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언어 능력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의사소통 태도와 맥락 이해력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제공하는 신속함과 간편함은 한국어 실력과 무관하게 한국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 차이보다 언어가 안 통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주택 임대료 같은 평범한 것도 언어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언어 때문에 아직은 한국 사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학습자 B)

제게 중요한 한 가지는 예의와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제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는데도 아파트 빌릴 때, 은행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사람들과 더 쉽게 교류하게 되었어요. 말이 서투러도 예의가 바르면 사람들이 더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학습자 A)

노르웨이에서 거의 외식한 적이 없어요. 우리집은 외식도 안하고 배달도 안 시켰어요. 배달을 시키는 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여기는 서비스가 대단해요. 아침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도 되고요. 꽤 편리해요. (참여자 C)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높은 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유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학업 및 한국 체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양이(2008), 서영주(2020) 등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의 비싼 학비, 높은 생활비는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딪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럽 출신 유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일상적인 소비와 식생활, 대외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외 활동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판단뿐 아니라 유학 이후 정착 가능성과 학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돈 걱정 안 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전 절약해야 하나요. 제가 원하는 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저는 돈을 모아야 해요 ...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에게서 더 많은 돈을, 아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여자 A)

저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식료품 예산이 정말 높아요. 적어도 4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 비싸서요. (참여자 C)

특히 근로에 관해서요. 가끔 코펜하겐이나 암스테르담에 있었다면 저를 스스로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일자리를 가졌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어요. (참여자 A)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럽 출신 유학생들은 대학 생활 전반에서는 언어 장벽, 정보 접근 제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학사 행정과 교내 의사소통이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고 이는 소속감 결여와 자율적 생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대부분 표면적이거나 기능적 역할 분담에 머물렀으며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은 교내 언어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구조적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지속되었지만, 예의 바른 태도와 개방성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기회의 부족, 높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은 학업 지속성과 정착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을 단순한 국제화 지표의 수치가 아닌 학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언어·문화·경제적 여건을 포괄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4.4.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선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럽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결정하고 입학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한국 유학과 관련된 공식 정보가 유럽 지역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진학 준비는 사실상 개인의 탐색 역량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유학 대상국으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공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 가시적 선택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또한 아시아권 학생들은 유학원 등을 통하여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서류 지원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한국 대학 지원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웹사이트 및 지원 관련 사이트가 비직관적이며 서류 요구와 절차 안내가 복잡하고 번역이 미흡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대학의 실제 입

학 과정에서의 절차적 접근성과 언어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유럽에 있을 때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다 직접 조사해야 해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참여자 A)

제 학교는 국제적인 학교라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서구권, 호주, 미국으로 가는 광고가 있었어요. 아마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한국에 직접 지원한 거요? 너희들 대학 지원 웹사이트 기억해? 그게 문제였어요. 지원하려고 할 때 방학 중이었는데, 어려웠어요. 뭔가 문제 생길까 봐 걱정됐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놓칠까 봐 걱정도 했고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무엇이든 은행 명세서를 요구했어요. 원본을 제출하라고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문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참여자 A)

또 다른 유학생들을 개선 사항으로 입학 이후 생활 측면에서 기숙사 재배정 불가 문제를 가장 큰 불편 요소로 지적하였다. 첫 학기 이후의 주거 불안정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학업 지속 의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첫 학기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두 번째 학기에 기숙사에 머물기 위해 재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숙사 말이예요. (참여자 B)

또 다른 개선 요소로는 장학금을 들고 있다. 참여자 A는 유럽 출신이

라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동하면서 장학금 기회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고물가 속에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적 기반 장학 선발 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유학생 지원 정책이 국가 경제 수준이라는 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에 의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유럽이 너무 부유해서 모두가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의 수준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들 본국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게 나올 때마다 남미나 인도 같은 나라들을 넣는 거죠. 유럽은 아예 없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장학금이 필요해요. (참여자 A)

또한 유럽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언어 지원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B는 유럽인이라고 모두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영어 능력 부재 시 한국 유학의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대학의 국제 교육 환경이 영어 가능자 또는 한국어 가능자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지적하는 것으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유럽권 학생들, 나아가 아시아권 학생들도 어떻게 한국 대학이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언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유럽인이라도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좀 특별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유럽 학생들은 한국 대학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중국인은 영어를 못해도 어쨌든 오는데, 유럽인들은 그 언어를 못하면 왜 거기에 가야 하나냐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참여자 B)

이상의 분석은 한국 대학이 유럽권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후 단계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학 정보 제공 확대, 다언어 정보 제공, 입학 절차 시스템의 간소화, 기숙사 재배정 정책 개선, 실질적 필요에 기반한 장학금 설계 등이 요구된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단지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육적·생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학습자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럽 출신의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한국 대학 유학 동기, 전공 수업 참여에서의 언어적 어려움, 한국어 지원 교과목 및 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 캠퍼스 전반의 생활 경험과 적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한국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럽 출신 유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숙달도가 초급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전반적으로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사 및 번역 과정을 거쳐 주제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주요 분석 항목은 동기 및 기대, 전공과 한국어 과목에서의 학업 경험, 생활 및 문화 적응,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선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첫째, 유럽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진학 동기는 단일 요인보다는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 선호, 영어 강의 수강 가능성, 한국 대학의 융합적 커리큘럼 구조, 학비 및 생활비의 상대적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경제적·제도적 접근성이 주요 선택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 대학이 유럽권 유학생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학업 경험 면에서는 전공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수업의 학점 구조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존재하였다. 한국어 수업에 있어서는 특히 한자 문화권 학습자와의 어휘력 격차로 인해 유럽권 학생들이 자존감 저하, 의욕 상실 등을 겪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어교육의 수준별 편성과 전공 연계 어휘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호작용 중심의 어휘 수업, 전공 진입 전의 목적 지향형 학습 기회 마련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생활 및 문화 적응에 있어서는 언어 장벽이 문화 차이보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방향적인 경우가 많았다. 학내 포털 시스템, 공지 채널, 단체 채팅방 등의 기본 운영 언어가 한국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유학생의 정보 접근과 자율적 생활 운영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유학생의 소속감 결여 및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 관계 형성을 경험한 사례는 제도적 중재 장치가 유학생 적응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유럽 유학생들은 유학 결정 단계에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비직관적 입학 시스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등 제도적 장벽을 경험했으며, 입학 이후에도 기숙사 재배정 불가, 장학금 기회의 제한, 생활비 부담, 근로 기회의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유럽권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라는 전제 하에 정책 설계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교육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유럽권 유학생을 위한 다언어 기반의 입학 정보 제공과 유학 절차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둘째, 전공 연계형 한국어교육과 수준별 어휘 중심 수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과 적응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사 시스템의 다국어 버전 통합, 외국인 학생 대상 맞춤형 포털 운영, 유학생 멘토링 제도 정착 등이 시급하다. 넷째, 장학금 배분과 기숙

사 정책에 있어 국가 단위의 경제력이 아니라 실제 가계 사정과 생활 비용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소수자에 머물고 있는 유럽권 유학생의 심층 경험을 탐색하여 향후 유학생 유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특정 대학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전공 배경의 유럽 유학생을 포함한 다중사례 연구, IDI(in-depth interview)를 통한 개별 서사 중심 분석, 한국어 숙달도 및 학업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혼합 방법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실행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제도적 접근도 병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학의 국제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31차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15-29쪽.
- 김현진·김영주,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화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안암교육학회, 2015, 201-225쪽.
- 백성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8,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2016, 67-100쪽.
- 서영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생활 경험 내러티브 탐구: 부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0, 35-58쪽.
- 연재훈, 「유럽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 1-31쪽.
- 이상숙,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7(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111-133쪽.
- 이민경,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2012, 177-201쪽.

- 임현성, 「한국 내 유럽 지역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로 인한 교사 인식 변화의 필요」, 『외국어교육연구』 30(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6, 133-160쪽.
- 조윤행, 「유럽권 한국어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통한 학습 동기 연구 - 국내 체류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2, 329-355쪽.
- 최정윤·김은영·김지하·박근영·민숙원,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2024.
- 최현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71-94쪽.
- Jordan, R. R.,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an, D. L.,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1997, SAGE Publications.

Abstract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Needs of European International
Students at Korean Universities
: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Oh, Sun Kyung
(Wonkwang Digit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tivations for studying abroad and the academic and life adaptation experiences of three European students at Korean universiti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e findings show that students' motivations were multifaceted, including an interest in Asia, the availability of English-taught courses, and Korea's relative economic stability compared to Japan. While participants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major courses,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vocabulary gaps in Korean language classes, highlighting the need for major-linked, vocabulary-focu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life adaptation, language barriers limited access to campus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resources, and students faced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restricted scholarship opportun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provision of multilingual information, major-linked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integration of academic systems, and more equitable financial support policies.

Keywords: Europ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universities, University experience, University adaptation, Learning needs

오선경

소 속: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전자우편: skoh@wdu.ac.kr

논문투고일 2025. 11. 16 / 심사완료일 2025. 12. 12 / 게재결정일 2025. 12. 14